

청일전쟁·러일전쟁-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서영희*

1. 머리말
2. 청일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3. 러일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4.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말 20세기초 한반도의 운명을 식민지화로 귀결지었던 두 번의 국제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학계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해왔다. 두 전쟁이 동북아의 국제정세 뿐아니라 당시 제국주의 열강간의 역학관계에 대변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전쟁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영국, 미국 등 구미 각국의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학, 역사학이나 전쟁사, 군사사 연구자들이 다각도로 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전쟁의 성격과 의미,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조명해왔고 이미 많은 단행본과 연구사 정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¹⁾

반면 두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이고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의 관심과 연구성과는 국제학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두 전쟁의 직접 교전국이 아니다보니 개전경위와 전쟁관련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했고, 한반도는 단지 강대국간 전쟁의 목표물로서 대상화되거나 철저히 종속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제정치학이나 정치외교사학계의 관심에 비하면 역사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근래에야 시작된 편이고, 주로 전쟁사, 군사사적 관점의 연구성과가 산출되고 있다.²⁾

하지만 한반도가 직접적으로 전쟁터가 된 만큼, 두 전쟁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 및 각 정치세력이 전쟁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취한 태도와 정책결정, 군대의 동향, 지역민들의 피해상황 및 피해지역의 사회경제사 등에 대해 향후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청일전쟁, 러일전쟁 연구에서 주체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쟁사, 군사사 차원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한국 근대사의 일부로 두 전쟁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전쟁이 미친 영향을 당시의 정치, 외교,

1)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 국제학계를 포함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 대한 연구사 정리와 주요 자료 및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박영준, 1996 「청일전쟁」, 『한국외교사연구』(김용구, 하영선 편), 나남출판, 339~416쪽 및 같은책 463~601쪽의 강상규, 「러일전쟁」 참조. 두 논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개전의 원인, 배경, 국제열강 간 역학관계와 외교, 전쟁의 진행과정과 군사정책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주로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학계의 연구성과 위주이고, 관련된 연구주제의 성과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주로 200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학계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연구논저를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측면의 연구로는 심현용, 2014 「청일·러일전쟁의 전개와 군사사적 특성」, 『청일·러일전쟁의 기억과 성찰』 전쟁기념관 참조.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³⁾

이상의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두 전쟁에 대한 국제학계의 연구성과 들을 토대로, 최근 한국학계의 주요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소임을 대신할까 한다. 또한 한중일 3국간의 역사갈등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교육 분야에서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⁴⁾ 향후에는 동아시아 3국이 두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3) 최근 일본인 연구자 중에서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제1·2차 조선전쟁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면서, 두 전쟁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지배권 획득이었다는 사실과 한반도가 직접 전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전쟁 승리를 통해 '메이지의 영광'을 부각시키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입장을 반성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 하라 아키라(김연옥 옮김), 2015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15~17쪽 참조.
- 4) 정재정, 1998 「한국과 일본의 러일전쟁관- 충돌하는 역사인식의 단면-」, 『한일양국의 상호인식』한일관계사학회; 朴正鉉, 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중국근현대사연구』 20; 柳鏞泰, 2004 「환호속의 警鐘 : 戰場 中國에서 본 러일전쟁」, 『역사교육』90; 오병수, 2004 「청말 중국 지식계의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東方雜誌』의 立憲自強論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21; 金元洙, 2004 「한국의 러일전쟁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개원원인을 보는 시각」, 『역사교육』90; 박맹수, 2004 「19세기 말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된' 기억 -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1; 박진한, 2006 「일본의 전쟁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러일전쟁 100주년을 돌이켜보며」, 『역사교육』 98; 이상일,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분석 -독도와 러일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교육』13; 최규진, 2012 「청일전쟁기 지식인의 국제정세 인식과 세계관」, 『아시아문화연구』26; 사카이 히로미, 배영미, 2015 「일본 역사교육 속의 청일전쟁과 조선: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50 등

2. 청일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청일전쟁은 수 백년 동안 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해온 중국을 대신하여 신흥 제국주의국가로 발돋움하는 일본의 부상을 이끌어낸 전쟁이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⁵⁾ 삼국간섭으로 인해 가까스로 기사회생하여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청·일간의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방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이 되었다는 평가는 철저히 일본측 입장에서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청의 종주권 주장을 배제하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 청일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조선은 이미 188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청의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면서 근대적인 만국공법 질서예의 편입을 시도해왔다.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내정간섭에 저항하고 미국에 常駐 외교사절을 파견한 행위 등이 그 예이다.⁶⁾ 조선의 자주독립은 일본이 주장하듯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더 나아가서는 1899년 청과 대등한 근대적 조약관계를 수립한 韓淸통상조약의 체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⁷⁾ 청일전쟁 연구에서 주체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근대사의 향방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청일전쟁이지만, 그간

5) 갑오개혁 당시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대해서는 모리야마 시게노리(김세민 역), 1994 『근대한일관계사연구』 현음사 참조.

6) 청의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는 조선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具仙姬, 2006 「청일전쟁의 의미 -조·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참조.

7) 한淸통상조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영희, 2006 「한淸통상조약 이후 韓中외교의 실제와 상호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3 참조. 한淸통상조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권석봉, 1984 「청일전쟁 이후의 한淸관계 연구 1894-1898」,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권석봉, 1987 「한·淸통상조약의 체결」, 『동방학지』 54:55-56 합집; 은정태, 2000 「1899년 한·淸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 등 참조

한국 역사학계는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에 비해 청일전쟁에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거나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국제학계 역시 이 시기 동북아에서 열강간의 대결은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청일전쟁을 러일전쟁으로 가는 도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⁸⁾ 청일전쟁 자체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았다. 패전국인 중국에서는 최근 청일전쟁 패배의 원인에 대한 규명 등 방대한 연구성과들을 산출해내고 있다.⁹⁾

반면 일본학계는 메이지 근대국가 체제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일전쟁에 대해 그간 연구사를 선도해왔다.¹⁰⁾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참모본부에 의해 정리된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와 방대한 외교사료들에 의거하여 서술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연구를 비롯하여¹¹⁾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의 정치외교사적 연구가¹²⁾ 초기 연구에 해당된다. 나카스카 아키라(中塚明)는 청일전쟁 도발과 전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본 외무성과 군부의 갈등에 주목한 시노부의 견해를 비판하면서¹³⁾ 청일전쟁은 조선의 속국화 및 랴오둥반도의 분할 기도를

8) 이러한 관점에서 청일전쟁 시기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고전적 저작으로는 Malozemoff, Andrew, 1958,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석화정 옮김,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Lensen, George A.,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89* (Tallahasse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82, Vol. I and II; Nish, Ian,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5 등이 있다.

9) 최근 중국학계의 청일전쟁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경록, 2014 「중국학계의 청일전쟁 연구경향과 인식」, 『전쟁과유물』 6 참조.

10) 일본학계를 포함하여 청일전쟁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사 정리로는 이웅현, 2006 『역사로서의 중일전쟁-중일전쟁의 연구사』,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중일전쟁의 국제정치와 군사전략』(강성학 편저), 리북 참조.

11) 田保橋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朝鮮總督府 中樞院; 田保橋潔, 1951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 刀江書院

12) 信夫清三郎, 1935 『陸奧外交 - 日清戰爭の外交史的研究』 叢文閣

13) 中塚明, 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おただ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정책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나카스카의 비판적 청일전쟁 연구에 비해 청일전쟁 당시 일본정부 내부의 혼선이나 상황논리에 주목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의 연구도 있었다.¹⁴⁾

근래 일본학계의 청일전쟁 연구는 단순히 전쟁의 발발 경위와 주체를 둘러싼 정치외교사적 연구를 넘어서 전쟁에 참가한 이름 없는 병사들이나 그 가족, 메이지 국가의 臣民으로서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해왔는가(大谷正·原田敬一), 그것이 일본 근대국가 성립과 근대 국민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는 연구(檜山幸夫·佐谷眞木人)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의 사회사라 할 수 있고, 서민과 민중생활사적 관점에서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연구들이다. 방법론적으로도 전쟁소식을 전한 각 신문의 보도내용이나 사진들, 참전병사들의 일기와 편지, 종군기자들의 견문록을 분석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전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들을 추출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일본학계의 연구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청일전쟁 연구를 살펴보면, 역시 초기에는 전쟁의 발발 배경과 개전 동기 등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규명하는 관점의 연구가 많았다.¹⁶⁾ 단 전쟁의 목표

す」高文研(박맹수 역, 2002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나카스카 아키라 외(한혜인 역), 2014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등 참조.

14) 藤村道生, 1973 『日清戦争』岩波書店(허남린 역, 1997 『청일전쟁』 소화); 高橋秀直, 1995 『日清戦争への道』創元社 등

15) 大谷正·原田敬一, 1994 『日清戦争の社會史-文明戦争と民衆』フォーラム・A; 檜山幸夫, 1997 『日清戦争-秘藏寫眞が明かす眞實』講談社; 檜山幸夫, 2001 『近代日本の形成と日清戦争』雄山閣; 大濱徹也, 2004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刀水書房; 大谷正, 2006 『兵士と軍部の日清戦争』有志舎; 原田敬一, 2008 『日清戦争』吉川弘文館; 佐谷眞木人, 2009 『日清戦争-國民の誕生』講談社; 大谷正, 2014 『日清戦争: 近代日本初の對外戦争の實像』中央公論新社; 하라다 게이이치(최석완 옮김), 2007 『청일·러일전쟁』어문학사 등

16) 한국학계에서 청일전쟁 시기를 다룬 초기 연구서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자 초기 전투가 한반도에서 진행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시 조선정부의 대응과 청일전쟁의 전개과정을 연관지어 파악하거나 동학농민전쟁을 결부시켜 고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본에서 출간된 박종근의 연구가 선구적이다.¹⁷⁾

청일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각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주로 천황과 내각, 외무성과 군부의 동아시아 정책 차원에서 개전의 주요 동기와 대응 양태를 규명하고 있고,¹⁸⁾ 중국,¹⁹⁾ 영국, 러시아, 미국 등 구미열강의 대응이나,²⁰⁾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다.²¹⁾

이러한 연구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청의 경우 리홍장(李鴻章)이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중재를 기대하면서 주화론적 입장을 견지한 반면,²²⁾ 청조 내부의 일부 주전론자들과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영국은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침략을 묵인한 반면, 러시아는

편, 1984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일조각; 한국사연구회 편, 1985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일조각; 김기혁 외, 1996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강성학 편, 2006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리북 등 참조
17) 박종근, 1982 『日淸戰爭と朝鮮』 靑木書店(박영재 역, 1989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8) 崔碩堯, 1997 『日淸戰爭への道程』 吉川弘文館; 崔碩堯, 1999 「日本政府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淸日戰爭」, 『동양사학연구』 65

19) 金志煥, 2005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강문호, 2009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과 淸 중앙의 강령론: 文廷式의 『文廷式集』을 중심으로」, 『동학연구』 27 등

20) 김현철, 2002 「청일전쟁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분석 -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軍史』 47; 오정우, 2002 「淸日戰爭 전후의 영국의 대한 정책」, 『全南史學』 19 등

21) 최덕수, 1994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변동」, 『역사비평』 26; 최덕수, 2005 「1894농민전쟁과 열강의 동향」,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상호인식의 충돌과 접합』 선인출판사; 왕현중 외, 2009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최덕수, 2014 「청일 러일전쟁의 세계사적 배경과 조선」, 『청일 · 러일전쟁의 기억과 성찰』 전쟁기념관 ; 김원수, 2015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조선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등

22) 金志煥, 2005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103~112쪽

애초에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중립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라오동반도의 뤼순(旅順)과 다롄(大連)을 조차하게 되자 러시아가 기존의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여 삼국간섭을 단행함으로써 일본이 일단 라오동반도를 포기하게 되고, 훗날 러일전쟁 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청일전쟁 승패에 대해 근대국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 체제를 형성한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로 청일 양국에 수용된 근대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었다.²³⁾

한편 청일전쟁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먼저 개전의 직접적인 계기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동학농민군의 봉기 및 진행과정과 관련 지은 연구들이 있다.²⁴⁾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청과의 일전을 준비해온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개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이 발단이 되었다. 동학농민군에 의한 전주합락 이후 조선조정이 위안스카이(袁世凱)와 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파병을 협의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던 리홍장(李鴻章)이 결국 청군 출병을 지시하게 된 경위, 1885년에 체결된 텐진조약 제3조에 따라 청이 일본에 조선 출병을 정식으로 통고하기도 전에 일본이 공사관과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본군 파병을 결정한 사실 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왔다. 청일 양군의 상륙 소식에 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한 후 조선정부가 청일 양국에 철병을 요청하자,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대한 청일 양국의 공동 개혁을 제안하면서 철병을 거부한 사실, 조선 주재 미국, 러시아 공사

23) 최치원, 2006 「근대기획 속의 동북아시아 - 평화파괴적 현실논리와 청일전쟁의 의미」, 『평화연구』14(1)

24) 조재곤, 1994 「청일전쟁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인식과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역사비평사; 박맹수, 2004 「19세기말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된' 기억 -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등이 청일의 동시 철병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본영이 개전을 결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제는 청일개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 사건을 보는 시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조선주재 일본공사의 행동이 과연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의 훈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출병을 결정한 대본영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內訓에 의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친일 개화정권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공사관 1등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의 행동을 포함하여, 오오토리가 고종에게 내정개혁방안을 上奏한 후 이를 거부하는 조선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용산 주둔의 일본군을 동원하여 7월 23일(음력 6월 21일) 새벽,²⁵⁾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성립시킨 일련의 과정을 일본 외무성 라인이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외무성과 군부의 합작에 의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한편 나카스카 아키라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日清戰史』초안을 발굴하여, 경복궁 점령 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일본이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를 왜곡 편찬했음을 폭로한 바 있다.²⁶⁾

경복궁 점령에 이어 일본이 6월 23일(이하 음력) 새벽 豊島 근처에서 청의 군함 廣乙호를 격침시키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된 후, 6월 27일 성환전투를 비롯하여 7월 1일의 정식 선전포고 이후 청일 양군의 전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戰史들이 다루고 있고, 조선측 대응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주로 7월 26일 조일맹약 체결 이후 일본군과 조선군이 연합하여

25) 청일전쟁 관련 연구에서 조선측 자료는 음력을 기준으로, 일본측 자료는 양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혼선이 야기된다. 차제에 연구자간 합의에 의해 날짜 표기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을미개혁으로 공식적으로 양력을 채택한 1895년 11월 17일 이전은 음력을 기준으로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6) 中塚明, 1997『歴史の偽造おただす』高文研(박맹수 역, 2002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나카스카 아키라(한혜인 역), 2014 『청일전쟁을 둘러싼 기억』,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참조.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게 된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²⁷⁾

사실 청일전쟁에 대한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는 친일 개화정권, 고종과 명성황후, 대원군세력,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세력의 인식과 대응을 각각 별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화정권이 조일맹약 체결 이후 일본군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청일전쟁을 지원한 반면, 대원군세력은 청의 리홍장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밀서를 보내거나 청군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동학농민군은 항일을 기치로 제2차 봉기를 일으켰다.²⁸⁾

일본은 조선정부를 압박하여 7월 20일 「暫定合同條款」을 체결하고 철로, 전신 등에 대한 이권을 확보한 후, 다시 조일 「兩國盟約」이라는 명목으로 攻守同盟을 체결하였다. 외무대신 金允植과 오오토리 공사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내용은 淸兵을 국경 밖으로 철퇴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고(제1조), 일본이 淸國과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군량 등 제반사항에 편의를 도모할 것(제2조), 청국과 和約 성립 후에는 조약을 파기한다(제3조)는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²⁹⁾ 이를 흔히 공수동맹이라고 하지만, 조선의 의무는 일본군에 대한 군량 등 편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고, 직접 청과의 교전에 참여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청과 화약 성립 후에는 파기된다는 한시적 조약으로서 일반적인 국제열강 간의 군사동맹 조약과도 차이가 있다. 경복궁 점령 이후 일본은 각 병영의 무기를 모두 압수하여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키므로써 청과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혹시 후방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조선군의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고자 했는데, 조선군의 직접적인 동원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27) 엄찬호, 2006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25

28) 조재곤, 1994 「청일전쟁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인식과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역사비평사

29) 김경록, 2014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에 관한 군사사적 검토」, 『군사』93; 김경록, 2015 「淸日戰爭 初期 朝日盟約의 강제 체결과 일본의 군사침략」, 『한일관계사연구』51

불구하고 일본군은 평양전투 이후 북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役夫와 牛馬 모집에 조선측 지원을 요청했을 뿐아니라, 조선의 巡捕軍으로 하여금 일본군에 동행하게 강제하였다.³⁰⁾ 일본군이 지나는 각군에서 인마식량 등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과 일본군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동학농민군이 반일을 내세우며 제2차 봉기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兩湖都巡撫營을 다시 설치하고 통위영 별군관 李圭泰를 선봉으로 농민군 진압군을 파견하였는데,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작전은 철저하게 일본군 지휘하에 이루어졌고,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의 규모는 미나미(南小西郎) 소좌가 이끄는 3개 중대로 이루어진 후 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중심으로 모두 9개 중대였다.³¹⁾ 일본이 농민군 진압에 명분으로 삼은 것은, 조일맹약에서 청병을 국경 밖으로 격퇴하는데 조선이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학농민군이 오히려 청의 패잔병과 결탁하여 일본군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농민군이 본격적으로 재봉기하고 조선정부가 일본 측에 정식으로 농민군 진압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비공식적으로 농민군 진압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조선정부의 농민군 진압 요청조차도 오오토리 일본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규명되었다.³²⁾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청일전쟁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은 주로 동학

30) 엄찬호, 2006, 앞의글

31) 배향섭, 2006 「중일전쟁이 동학농민전쟁에 미친 영향 -전봉준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강성학 편저) 리북

32)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에 대해서는 강효숙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 강효숙, 2002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762, 靑木書店; 강효숙, 2005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6; 강효숙, 2007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민족운동사연구』52; 강효숙, 2008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47; 강효숙, 2008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관련사료 해제」, 『한국근현대사연구』47; 강효숙, 2009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등

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청일 양군의 파병으로 인한 개전 경위와 친일 개화정권 수립 이후 조선 관군과 일본군 연합에 의한 농민군 진압과정 등에 집중되었고, 청일전쟁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간의 주요 전투상황과 전쟁 중에 지역민들이 겪은 피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헌들이 출간되고 있다.³³⁾

전쟁지역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청군이나 일본군이나 약탈적인 현지 징발로 피해를 주었음은 동일하지만, 평양전투와 일본군이 압록강으로 북진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 북부지역 일대에서 조선 민중들이 일본 병참부를 습격하거나 전신선을 절단하는 등 일본군에 저항한 사실들이 주목되는 한편, 평양전투에서 조선 관군이 일본군 편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이에 앞서 평양감사 민병석이 청군과 함께 대일전에 대비한 방어공사를 준비하였고, 남쪽 논산에서도 동학농민군이 패잔 청군과 동행한 사례가 밝혀지는 등 구체적인 전쟁 현장에서는 조선이 청, 일 양군 사이에서 협력군으로 때로는 적군으로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일전쟁에 대한 통설과는 달리 향후 구체적인 전투 현장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과 군사사적, 전쟁사적 측면의 연구가 좀더 진척되면 한반도에서 전개된 청일전쟁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청일전쟁 당시 해전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은 많지 않지만,

33) 차경애, 2007 「淸日戰爭 당시의 戰爭見聞錄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명청사연구』28; 차경애, 2008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14; 조재곤, 2008 「한 일본인 종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 『軍史』66; 제노네 불피첼리(유영분 역), 2009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살림; 姜孝叔, 2009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병참부: 황해·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1; 조재곤, 2015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 한국 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등

청일개전의 시위를 당긴 풍도 앞바다 해전, 평양전투에 이어 시작된 황해해전 등에 대해 청, 일 양국 함대의 숫자와 톤수 등 객관적 전력을 비교하면서 증기기관으로 항해하는 군함끼리의 해전으로서 세계해전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³⁴⁾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고종과 명성황후 등 조선의 왕실세력이 청일전쟁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으며, 그것이 개화정권과의 관계, 일본에 대한 대응, 더 나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며 일본을 견제해 보려한 대책 수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삼국간섭 이후 조선정부 내 정치세력 간 권력구도의 변동, 왕실이 추진한 친러거일책과 을미사변의 배경을 파악하고 조선의 반청운동의 종착점인 대한제국 선포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러일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러일전쟁은 삼국간섭 이후 10여년 간 대립을 계속해온 러시아와 일본 양국 간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구미 제국주의 열강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규모나 참전군인 수, 비용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전 배경에 있어서도 청일전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20세기 최초의 국제전이였다. 청일전쟁이 아시아의 舊제국과 신흥 근대국가가 일본 간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 다툼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러일전쟁은 한반도를 넘어 열강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주지역까지 전쟁의 목표가 확대되었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입

34) 金容旭, 2008 「清日戰爭(1894-1895)·露日戰爭(1904-1905)과 朝鮮海洋에 대한 制海權」, 『법학연구』49(1)

을 시작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간 국제학계의 많은 관심과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³⁵⁾

한편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이 중국과의 오랜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된 반면, 러일전쟁은 보호국화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쟁으로서 식민지화의 前史로서 인식된다.³⁶⁾ 군사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러일전쟁은 압록강 건너 만주지역에서의 전투와 뤼순해전, 동해해전 등에서의 승패가 결정적이었고, 한반도에서는 주로 러시아 국경지대인 함경도에서 소규모로 종전시까지 국지적인 전투가 있었을 뿐이지만,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러일전쟁 당시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을 황백인종간의 대결로 인식하면서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한때 문명개화론자였던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³⁷⁾ 극단적인 친일 근대화 세력인 일진회가 조직적으로 일본군의 군수물자 수송에 협력하면서 러일전쟁에 종군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⁸⁾ 반면 戰時中立을 선언한 고종황제와 그 측근세력들은 친일내각의

35)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학계의 최근까지의 주요 저작목록은 하라 아키라(김연옥 옮김), 2015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참조. 연구사 정리로 이주천, 2014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여-과거 10년동안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33과 와다 하루키(이경희 역), 2011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제이앤씨 참조. 근래 한국학계에서 많이 인용하는 러시아측 사료를 이용한 러일전쟁사로는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김중현 역), 2004 『러일전쟁사』 건국대출판부; 朴鍾濤, 2014 『한반도 分斷論의 起源과 러·일 戰爭(1904~1905)』 선인 등 참조.

36)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아 한국 역사학계에서 러일전쟁의 의미를 논의해 본 기획으로는 2004년 『역사비평』 69의 「러일전쟁 100년 - 한국·러시아·일본-」에 실린 한철호, 「한국: 우리에게 러일전쟁은 무엇인가」, 나리타 류이치, 「일본: '기억의 장'으로서의 러일전쟁」, 김영수, 「러시아: 러일전쟁 패배를 보는 두 시각 - 비테와 쿠라빠뜨킨의 논쟁을 중심으로」 참조.

37) 서영희, 2010 「한국 근대 동양평화론의 기원 및 계보와 안중근」,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지식산업사

38) 李容九, 『北進輸送隊日記』(李寅燮, 1911 『元韓國一進會歷史』文明社) 참조

정부대신들과 달리 러시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일본이 강요한 한일의 정서 체결에 저항했다.³⁹⁾ 따라서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의 최대 피해자 이면서 동시에 협력자이기도 했으며, 러일전쟁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은 각 세력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최근 한국학계의 러일전쟁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러일전쟁의 발발 배경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혹은 외교사학적 관점의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러, 일 양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각국의 정세인식과 외교정책을 다루고 있다.⁴¹⁾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정부예산의 40% 정도를 군사비에 쏟을 만큼 군비를 증강하면서도 한반도를 중시하는 북진론과 대만을 중시하는 남진론으로 분열하여 이토 내각은 의화단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⁴²⁾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등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 혹은 한반도 분할론의

39) 서영희, 2003『대한제국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조.

40) 서영희, 2014 「러일전쟁에 대한 대한제국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청일 · 러일전쟁의 기억과 성찰』 전쟁기념관

41) 강성학, 2000 『시베리아 철도와 사무라이 :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梁豪煥, 2004 「러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인식」, 『역사교육』90; 이우진, 2005 「러일전쟁과 테오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26(2); 최덕규, 2004 「러일전쟁과 러일협상(1905-1910) -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21; 박상우, 2005 「러일전쟁 전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러시아와 일본의 대외관계와 국내정세변화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20(1); 김원수, 2013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만주연구』16; 김원수, 2015 「러일전쟁과 외교혁명의 국제관계, 1904~1907」, 『군사』97; 김원수, 2015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와 영국의 대한정책 -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51 등

42) 조명철, 2007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전쟁수행과 침략의 제상-」, 『일본역사연구』26; 조명철, 2010 「청일 · 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36

입장에서 러시아측과 협상을 진행해 온 경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였다. 러일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만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자마다 서술에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다.

러일전쟁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포츠머스 조약 중재의 배경과 관련하여 주로 T.루스벨트 대통령의 친일적 태도와 그 형성 배경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⁴³⁾ 루스벨트와 하버드대학 동문인 일미친선협회장 카네코 켄타로(金子堅太郎) 남작이 『武士道』(Bushido:the Soul of Japan)를 선물했다거나, 조지 케난(George Kennan)과 같은 친일적 미국인들을 통해 일본이 집요한 해외 여론 공작을 펼쳐온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이 대한제국에 광산과 전차, 전 등, 전화사업 등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집요한 공작에 넘어가 일방적으로 친일적인 동아시아 정책으로 기울었다는 주장이다. 카스라-태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합의된 비망록(agreed memorandum) 수준에 불과한 것을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협약 수준으로 과장하여 공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영국이 오랜 고립정책을 버리고 일본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러일전쟁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고, 러일전쟁의 배경으로 영국의 일본 해군력 증강에 대한 지원, 러시아 함대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견제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일본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⁴⁴⁾

반면 러일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제열강간의 역학관계에서만 찾는

43) 梁豪煥, 2004 「러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인식」, 『역사교육』90; 이우진, 2005 「러일전쟁과 데오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26(2) 등

44) 金顯哲, 2005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군사』54

종래의 연구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러일간의 직접적인 개전 요인을 한국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즉 경의철도 부설권, 용암포 사건, 의주 개시 문제 등 한국 문제가 직접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 동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주에서의 러일간의 대립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반면, 정작 치열한 쟁패는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다고 실증한 연구였다. 사실 러일전쟁을 滿韓을 둘러싼 전쟁으로 보면서도 국제학계는 만주철병 등 주로 만주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고, 한국문제는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북부를 관통할 수 있는 경의철도 부설권은 滿韓지역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었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알려져 있는 용암포 사건은 일본이 경의철도와 東淸철도를 연결시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진출을 도모하려는데 대한 러시아 측 대응책에 불과했으므로 전쟁 발발의 책임은 러시아 보다는 일본 측에 돌려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용암포 점령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신노선’은 결국 경의철도 획득의 주역이었던 일본 측의 小村노선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는 평가이다.⁴⁵⁾

그런데 러일전쟁을 한국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인식하자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사이에서 대한제국이 펼친 외교정책의 실체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주지하듯이 대한제국은 1900년 이후 러시아와 일본을 상대로 중립국화 교섭을 계속했고, 미국을 끌어들여 열강 공동보증하의 중립국화 노선을 추구하기도 했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에는 고종의 측근 현상진이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중립국화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가 1904년 1월 21일 중국 지부(芝罘)에서 극적인 전시중립선언으로 나타났지만, 이면에서는 러시아 주재 이범진 공사를 통해 끊임없이 러시아의 군사적 보호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1903년 8월 15일자 친서에서

45) 金元洙, 1997 「露日戰爭의 原因에 대한 再檢討-용암포 事件과 義州開市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원수, 2004 「한국의 러일전쟁 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 개전원인을 보는 시각」, 『역사교육』 90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가 곧바로 일본군 휘하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서 러시아군의 신속한 개입을 호소하고,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일본군 숫자와 거동 등을 탐색해 보고하겠다고 다짐할 정도였다.⁴⁶⁾

그러면 대한제국은 왜 중립화 노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러시아에 대한 보호 요청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제국의 허약한 국방력에 있겠지만, 완충체계 이론에 따르면, 경쟁하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완충국:buffer zone)은 완충체계 내의 경쟁 강대국 중 한쪽으로 편승을 시도하여 생존을 도모하거나 누가 더 위협적인가를 기준으로 편승의 대상을 찾기도 한다. 대한제국의 경우에도 완충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완충국에게 덜 위협적인 국가는 덜 강한 국가이거나 완충국에 대해 갖는 이익이 더 적은 국가이며,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패하거나 완충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한 외교정책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즉 대한제국의 중립화 외교는 군사력 미비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위능력 없이 국제법만 믿고 이상주의적으로 추진한 한계가 있었고, 또한 완충체계 내의 중립은 경쟁하는 강대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한반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은 이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중재해줄 제3의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당시 경쟁하는 양 강대국보다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위해 군사행동을 시도할 만큼 이해관계가 크지도 않았다고 평가하였다.⁴⁷⁾

한편, 근래에는 전쟁사나 군사사적 관점의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러일전쟁의 전모를 보여주는 戰史나 회고록, 전문기의 번역

46) 서영희, 2014, 앞 논문 참조.

47) 김연지, 2014 「완충체계 이론으로 본 청일·러일전쟁과 조선의 비극」, 『평화연구』 22(1)

출간도 잇다르고 있고,⁴⁸⁾ 군사적 측면에서 러, 일 양국의 전술 전략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⁴⁹⁾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4일, 일본이 閣議에서 전쟁을 결정하고 2월 8일,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군대와 군수품 파송을 시작했고, 개전과 동시에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2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당일 서울로 진입하였고, 2월 9일 아침에는 제물포에 정박 중인 러시아군함 바라크호와 카레예츠호를 격침시킨 후, 10일에야 뒤늦은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처럼 한반도가 러일간의 전쟁터였고 많은 물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투가 압록강 건너 만주와 여순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그간 한반도에서 전개된 지상전이나 해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러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와 전쟁 피해지역의 민중 생활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벌어진 러일 양군간 전투상황, 그리고 함경도에서 일본군이 실시한 軍政의

48) 러일전쟁전사편찬위원회, 1910 『러일전쟁 1904~1905』(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2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와 1908년 출간된 러시아 군사령관 쿠로파트킨 장군의 회고록 『러일전쟁』(심국웅 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은 러시아측 기록이고, 프랑스 르마탱 Le Matin지의 특파원인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가 1904년 제물포 해전에서 살아남은 러시아 군함 바라크 호와 카레예츠 호의 생존 장교와 병사들을 취재한 기록인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이주영 역, 도서출판 작가들, 2006), 미국인 저널리스트 앤저스 해밀튼이 1904년에 출간한 『러일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이형식 옮김, 살림출판, 2009), 미국인 중군기자 잭 런던(Jack London)이 평양을 지나 압록강 건너 중국 안동과 봉황성에 가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조선 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중군기』(윤미기 역, 한울, 2011), 루돌프 차벨(이상희 역, 2009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히여행: 1904년』, 살림출판 등은 중군기자, 저널리스트, 여행가 등 개인들의 러일전쟁 견문기라고 할 수 있다.

49) 朴明用, 2004 「창의성 부재의 비극 :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군 참모부의 군사전략」, 『군사』 53; 박영준, 2004 「러일전쟁 직후 일본 해군의 국가구상과 군사전략론 : 사토 테츠타로(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1908)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趙明哲, 2004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 51 등

실제와 민중 침탈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초기 러시아 측 군사관련 문서를 토대로 한 평양과 정주성 전투, 압록강 전투 등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⁵⁰⁾에서 더 나아가 러일전쟁 기간 동안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사회경제상과 전쟁에 동원된 군인, 일진회원, 민중 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⁵¹⁾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평안도는 일본군의 만주 진출의 핵심 동선으로서, 1904년 5월 압록강 전투 이후에는 일본의 중국침략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일본은 인력과 물자의 강제동원을 지속하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했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인 물자징발과 인력동원, 토지수용은 1904년 2월 23일 체결된한일간 「의정서」 제4조, 대한제국에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한 영토 보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한국은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며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청으로의 전쟁인부 파견과 서울-의주 간 군용철도, 압록강의 교량 부설 등을 위한 인부를 강제동원하고 각군에 훈령하여 숙소 및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일진회원들은 스스로 대규모 복진수송대를 구성하여 군수물자 수송에 나서기도 했다. 함경도는 러시아의 국경선과 동해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군의 자국 영토 진입을 막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연해주와 시베리아 진출을 위해 사활이 걸린 공방전을 벌였다. 압록강 전투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전쟁지역이었던 함경도의 전투는 육전과 해전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러일간의

50) 심현용, 2002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영토확장·청일전쟁·러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심현용, 2004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21; 沈憲用, 2004 「러일전쟁기 '제2전장' 한반도의 지상전 - 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51; 심현용, 2007 『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심현용, 2011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51) 조재곤, 2013 「전쟁과 변경 -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동북아역사논총』 41; 조재곤, 2013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 조재곤, 2015 「러일전쟁과 평안도의 사회경제상」, 『동북아역사논총』 49 등

동해 제해권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함경도 소재 2개의 진위대를 폐설하고 軍政을 실시하였으며 러일전쟁이 종결 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을 크게 제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부지역의 상황 속에서도 일부 세력들은 러시아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의병부대를 조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⁵²⁾ 1905년 6월 상순, 북간도 관리사 李範允이 무산·회령·종성·경원 지방의 각 진위대로부터 무기를 징집하고 부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것이다. 이범윤 휘하에는 전 진위대 참령 김인수와 김도현 등이 있었고, 함경도 출신 포수들이 러시아 분견대에 배속되어 러시아 장교의 지휘를 받기도 했다.⁵³⁾ 반면, 일어학교 졸업생들이 복진하는 일본군에 통역으로 참여하거나 일진회원들이 복진수송대에 참여하는 등 일본군에 협력한 사실은 러일전쟁 당시 한국인들의 彼我 개념에 균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범윤 등의 항일의병활동은 고종 황제가 러일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와 보내 러시아군에 협력 의사를 보인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친일내각은 공식적으로 일본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각군 지방관들에게 일본군 지원을 지시하는 훈령을 내리고 있었다. 평안도 진위대가 일본군과 합동작전으로 러시아 패잔병과의 전투에 참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교전상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제국은 이미 러일 개전 직전에 戰時중립을 선언했는데, 일본이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전쟁지원을 강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요에 의해 러시아와 국교

52) 심현용, 2005 「조러연합군과 러일전쟁 전후 군사협력-기원, 구상, 시도」,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53)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활동한 러시아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박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민경현 역),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단절을 선언했을 뿐, 한일의정서 규정상에는 러시아군과 교전의 의무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대한제국 진위대를 동원한 것은 한일의정서 상의 규정에 벗어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전에 대한 연구로는,⁵⁴⁾ 러일 양군의 해전 전략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경험으로 일본군 참모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근간으로 삼았던 반면, 러시아군은 태평양 함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작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뤼순이 함락되고 쓰시마 해전에서도 참패했다고 평가한 연구가 주목된다. 특히 시베리아 철도 및 뤼순항 건설을 둘러싼 러시아 내의 불협화음은 러시아군 참모부의 전략구상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였고, 일본군과 같은 육·해군 합동작전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러일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평가였다.⁵⁵⁾ 한국측 입장에서 1904년 8월 뤼순 함대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의 연합함대(連合艦隊)가 벌인 황해해전을 재조명하고, 일반적으로 일본해 해전 혹은 쓰시마 해전으로 불리우는 전투에 대해 동해해전으로 바꿔 부르면서 동해와 독도·울릉도 지역에 대한 군사 지리학적 의미를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⁵⁶⁾

최근 러일전쟁 연구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한

-
- 54) 金顯哲, 2004 「러일전쟁기 黃海海戰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군사』 51; 金顯哲, 2005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군사』 54; 최성환, 201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38; 김중헌, 2012 「러일전쟁 시기 제물포 해전과 만주에서의 육상전」, 『내일을 여는 역사』 49; 이민원, 2013 「러일전쟁과 대마도 - 황궁의 대화재와 ‘대한해협해전’의 성격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4; 심현용, 2015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군사』 97 등
- 55) 朴明用, 2004 「창의성 부재의 비극 :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군 참모부의 군사 전략」, 『군사』 53
- 56) 심현용, 2015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군사』 97

국가나 정부, 군부 지도자의 정책이 아니라 전투에 직접 참여한 병사나 피해지역 민중의 삶 등 전쟁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전쟁의 사회사를 복원하는 경향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외교문서나 정부문서와 같은 공문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戰史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회고록이나 견문록, 종군기자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전쟁의 참화 속에 휘말린 개인들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다. 물론 민중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없다는 점은 한계이지만, 전쟁의 실제 현장과 피해지역의 참상을 좀더 가까이에서 기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가 있다. 예컨대, 러일전쟁 기간 동안 발행된 전쟁전문 잡지인 『日露戰爭實記』에 연재된 여러 종군기자들의 글을 통해 전쟁지역 민중들의 삶을 살펴본 연구가 그러하다.⁵⁷⁾ 일본군 헌병의 회고록을 통해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다.⁵⁸⁾ 러시아군에 체포되어 일본군 포로와 함께 핀란드만 인근까지 끌려간 한국인 전쟁포로들의 지난한 귀환 과정을 연구한 논문도 전쟁의 참화를 개인적 체험 차원에서 풀어낸 연구이다.⁵⁹⁾ 러일전쟁 동안 일본에 협력한 공로로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 195명에 대한 분석은 러일전쟁기의 체험이 일제하 친일적 정치세력 형성에 모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훈포상자 중에는 대한제국의 지방관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진회 회원 31명, 군인 27명, 통역 22명 순이었다.⁶⁰⁾ 군인 중에는 어담, 노백린 등 일본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과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도 일본군과 함께 정주, 압록강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일전쟁에

57) 차경애, 2010 「러일전쟁 당시의 전쟁견문록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중국근현대사연구』 48

58) 이승희, 2015 「러일전쟁기 일본군 헌병대의 방첩활동 고찰 : 스즈키 타케오미(鈴木武臣)의 회고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2

59) 조재근, 2015 「러일전쟁과 한국인 포로 문제」, 『군사』 97

60) 김윤희, 2009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 - 일본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

대한 현재적 평가와는 달리 당대인들은 대한제국의 향방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한국 근대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도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국제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연구성과에 비해 한국학계의 주체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한반도는 단지 두 국제전쟁의 목표물로서 대상화되거나 종속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두 전쟁에 대한 전쟁사 혹은 군사사적 관점의 연구가 산출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아닌 전쟁을 겪은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전쟁의 참상과 피해 양상을 보여주는 사회사적 맥락의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청일전쟁 연구의 경우, 일본의 승리로 조선이 청의 속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의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총체상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연구경향은 동학농민전쟁 발발과 청일전쟁의 개전 경위를 연결시켜 보는데 그치고 이후 전쟁의 전체적 진행상황과 별개로 개화정권의 동향이나 갑오개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당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요조건을 제외하고 역사상을 서술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러일전쟁은 한반도를 넘어 열강의 이해가 집중된 만주지역까지 전쟁의 목표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국제전적 성격이 강화된 반면, 군사사

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 비해 대한제국의 각 세력들이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는 더 많았고, 러, 일 양국 중 한편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일제하 민족의 정치적 균열의 선구적 양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대한 연구사가 이제 개전 동기나 발발 배경 등을 규명하는 거시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 전쟁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미시사의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 좀더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와 연구방법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의 새로운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6.8.31, 심사수정일: 2016.9.12, 게재확정일: 2016.9.13.]

주제어 : 청일전쟁, 러일전쟁, 동학농민군, 갑오개혁, 대한제국, 만주

<ABSTRACT>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 Perspective of Korean Studies on International War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Suh, Young-hee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became the center of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academia, in that they resulted in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rought about upheaval in the dynamics of imperial powers as well as in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Meanwhile, interests and research achievements in Korean Studies are inactive compared to international academia, although they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Korea was not the belligerent country for two wars, there was lack of interest in the whole story for the outbreak of war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viewed as the target in the war between imperial powers, and tended to be perceived as dependent variable. However, I believe that more intensive research is needed for the attitudes and policy-making of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s about the progress of war, military movement, residents' damages, and social economy in the damaged district.

Recent research trends in Korean Studies o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nclude research on the outbreak of th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war or the military history, and research on the context of social history showing the misery and damage of war from individual experiences.

In case of research on the Sino-Japanese War, a fundamental shift in viewpoint is needed from that Chosun escaped from the tributary state

of the Qing Empire by the Japanese victory to that it trigg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 Han Empire and the declaration of sovereign independence. Research method is required to grasp the whole aspect in relation to the progress of Donghak Peasant War and Kabo Reform. The Russo-Japanese War was characteristic of an international war, in that the target of war was extend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Manchuria, where the interests of imperial powers were centered on.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history, the battles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very limited. Nonetheless,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in further study, in that each and all forces in the Great Han Empire were involved in the war directly or indirectly, and took sides with either Japan or Russia, which showed the pioneering mode in national political cleavag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Key words : Sino-Japanese War, Russo-Japanese War, Donghak Peasant Army, Kabo Reform, Great Han Empire, Manchuria

